

■ '2009 문예연감' 통해 본 광주·전남 문화계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간한 '2009 문예연감'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경우 하위권에 머문 타 장르와 달리 국악 부문에서는 두각을 나타냈다.

# 전시·국악 '강세' 무용·연극 '약세'

## 문학잡지 발행 고작 8종 ... 문화수도·예향 무색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 활동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3일 펴낸 '2009 문예연감'을 통해 2008년 한해 시각예술, 공연, 문학 등 각 분야의 활동상황을 점검해 본다.

시각예술의 경우 광주에서 열린 전시회는 모두 489건으로 2007년의 129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총 전시 건수 1천 6건 가운데 서울(6천 240건)과 경기(738건), 대구(660건), 부산(613건)에 이은 5위였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단체전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총 전시 489건 가운데 단체전이 338건에 달했고, 개인전은 151건이었다. 반면 부산과 대구는 단체전 건수가 271건과 282건에 불과, 개인전이 압도적 우위였다.

전라도(전북·전남) 지역 전시 회

수는 모두 216건으로 지난해 148건보다 늘었으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단체전(140건)이 대부분이었다.

문학 분야와 관련한 문예연감 자료 가운데 지역 관련 통계가 따로 잡힌 분야는 지역에서 발행되는 문학잡지 종수였다.

문예연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발행되는 문학잡지는 모두 289종. 이 가운데 광주에서 발행되는 문학잡지는 '문학들', '문학춘추', '시와 사람', '서정과 상상', '아시아서적문화' 등 5종에 불과했으며 전남에서 발행되는 문학잡지는 '소금꽃' 등 3종에 그쳤다.

반면 부산의 경우 무려 24종을 발행했으며 대구와 대전도 각각 11종과 8종을 발간,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연 부문 중 2007년에 비해 공연 건수가 증가한 분야는 양악 분야가 유일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진행된 양악 공연 건수는 모두 194회로 2007년의 146회보다 50여회가 늘었으며 인구 10만명당 공연 건수는 13.6건(6위)이었다. 16개 시도 가운데 인구대비 양악 공연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27.6건에 달했다.

전남 지역 역시 59건으로 지난해 41건보다 늘었지만 인구 대비 공연 건수는 3.1건으로 꼴지에서 두번째를 차지했다.

국악 분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전남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전남의 경우 연극·무용 등 타 장르는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나 국악은 인구 10만명당 공연 건수가 4.2건으로 전북(10.8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광주·전남과 함께 국악

의 분고장임을 자임하는 전북은 전체 공연 횟수에서도 201회로 서울(397회)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몇년째 광주·전남을 앞질렀다.

또 무용 공연 건수는 광주가 19건, 전남이 13건에 그쳐 2007년의 53건(광주·전남)에 훨씬 못 미쳤다. 연극 분야의 경우도 광주(38건) 전남(40건) 모두 2007년보다 저조했다.

한편 이번 문예연감과 관련한 통계 가운데 광주 지역 국악 공연 건수가 39건에 불과한 점은 의아하다. 매주 목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빛고을 국악전수관과 광주문예회관 남도소리 상설 공연만 집계해도 50여회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문예연감' 집필진은 "공연장 홈페이지, 전시 관련 잡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 최대한 통계의 신뢰를 위해 노력했지만 통계 대상의 특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월간미술정보지 광주아트가이드 출간

광주지역 전시회 소식과 미술관 행사 등을 담은 월간 미술 정보지 '광주아트가이드'(편집장 서동환)가 출간됐다.

최근 창간호를 낸 '광주아트가이드'는 김효경(화예연구사), 배종민(문학박사·미술사), 범현이(내일신문기자), 정위상무(작가·전시기획

자)씨 등이 편집에 참여했다.

또 지역별 미술관과 갤러리를 소개하고, 지역 작가들의 전시회 소식도 담을 계획이다. 매월 마지막 주에 3천부를 발행해 미술관 등지에서 무료 배포한다. 문의 062-434-86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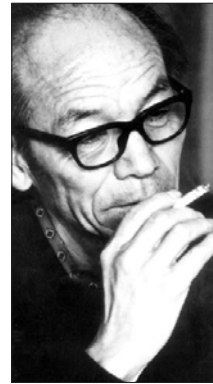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제 연장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관람제가 일단 연장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무료 관람 조치를 서민가계의 부담 경감과 문화 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

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작년 5월부터 14개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 미술관의 상설전에 대해 올해말까지 시범적으로 이뤄져왔다.

문화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문화 소비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맞춰 일단은 무료관람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故 배동신 '수채화 세계' 부활

여수미협 28일부터 '1주기 추모전' 자화상·60년대무등산 풍경 선보여



'무등산'

이후 1970년대 '황토회' 창립전, 1993년 원로작가 초대전 등에 출품하는 등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지난 1989년 여수로 옮겨 수채화 작업을 계속해왔다.

미국의 미술평론가 페리 비알러는 지난 1990년 발표한 비평문을 통해 "채색된 필치와 각진 선들이 화폭 전체에 널리 퍼져 안개처럼 표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다"고 그의 작품을 평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타계한 고(故) 배동신(사진) 화백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추모 전시회가 열린다.

여수미술협회(회장 이준립)는 오는 28일~2010년 1월9일 여수 오동도 동백관에서 '배동신 화백 1주기 추모전'을 연다. 한국 수채화의 거장으로 평가받았던 그의 첫 추모 전시이다.

이번 전시에는 그의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며, 1950년대 자화상, 인물 시리즈와 1960년대의 무등산 풍경의 특징을 년도 별로 나눠 선보인다.

무등산의 넉넉한 산세를 투박하면서도 투명한 색감으로 표현한 수채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또 비정형적으로 가슴을 확대한 누드 작품에는 이 땅을 지키는 모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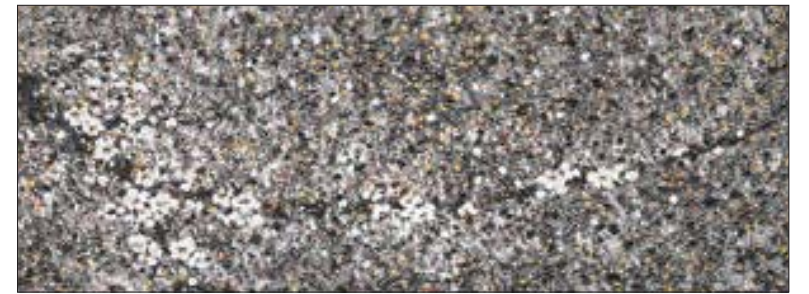
위대함과 풍성한 생명력이 담겨있다.

지난 1920년 광주에서 출생한 그는 17세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본 동경으로 건너갔다. 1939년 가와바타미술학교에 입학해 대생 등 기본기를 다진 배화백은 이곳에서 한국 근대 회화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문학수, 이중섭 등과 어울리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그는 주로 목포항, 정물, 여인상, 누드 등을 즐겨 그렸으며 거칠고 투박스럽게 표현한 무등산 작품 등을 통해 독창적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또 1968년에는 광주에서 강연균, 김충근, 박철교, 우재길, 최중섭씨 등 후배들과 함께 국내 첫 수채화 그룹인 '수채화창작가협회'를 결성해 전시회를 열었다.

## 목향 머금은 한국의 멋



위진수 작 '눈 속에서 매화를 찾다'

### 호국회 서울서 12번째 단체전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한국화가들의 모임 호국회(회장 위진수)는 오는 29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의 서울 인사동 분관인 갤러리 라이트에서 12번째 단체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위진수, 오창록, 정

경춘, 박종호, 김문순, 유주희, 김진수, 김창남, 조영희, 박수봉, 강종원, 고봉석, 박석주, 이윤숙씨 등 20여 명이 참여해 목향 그윽한 한국화의 진수를 선사한다.

박종호씨는 포석정의 풍경을 단아

하게 담은 수목담채화를 선보이고, 화사한 색으로 해바라기, 민들레 등 꽃의 아름다운 표현한 작품을 전시한다. 문의 062-510-0134.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내일 광주서 '대한명인' 추대식

## 정명숙씨 등 25명 총재단 취임식도

전국의 숨은 명인들을 발굴해온 (사)대한명인회가 제 10차 대한명인 추대식과 대한명인회 총재단 취임식을 갖는다. 26일 오후 3시~7시 광주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지난 2004년 출범한 (사)대한명인회는 국악, 공예, 음식, 인문 등 다양한 장르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인들을 발굴,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지금까지 침·뜸의 대가인 구당 김남수 명인과, 윤진철 명창 등 221명을 선정했다. 이번 광주에서 열리는 10차 추대식에서는 이매방 류 살풀이의 정명숙, 목상감 분야의 김동귀(진주산업대 교수), '명인명무전'을 기획한 박동국(동국예술기획 대표)씨 등 모두 25명이 새롭게 명인으로 추대된다.

또 이날 같이 열리는 총재단 취임식에서는 명예총재에 국회의원

박주선, 명예부총재에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 정찬용, 부총재에 최중재(주 동화 회장)씨가 추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명인 추대식을 기념하는 국악 공연도 마련된다. 풍물세상 굿패 마루의 '모듬북 공연', 한국무용가 송진수의 입춤, 소리꾼 박준맹의 관소리 '심청가' 등이 주 프로그램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퍼시스 소품이 광주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정된 수량! 한정된 기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퍼시스

FURSIS FEELS Room